신앙에는 내일이 없다

(눅3:21-22)

21.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22.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신앙에는 내일이 없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신앙에는 내일이 없다'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좌우명으로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내일이 있다는 그 구절을 머릿속에 기억하지 않더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이다.
그런데 이 좌우명 자체가 상당히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아이러니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 내일이 되면 오늘 모레였던 날이 또 내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 행복한 내일이 언제나 내일로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내일에 대한 기대 속에서 오늘의 수고와 고통과 모자람을 참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일을 향한 기대가 보편적인 특징인 가운데서도 결코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끼어들 여지가 없고 용납되지 않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여러분 연애라는 게 뭐죠?
남녀가 서로 아주 애가 타도록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연애입니다.

그러면 애호가 뭡니까?
우리가 애호가다 할 때, 동물애호가, 국토애호가 음악애호가, 낚시애호가 할 때 그 애호가도 마찬가지에요.
연애가 남녀 간의 대상을 갖는다면, 애호라고 하는 건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 애틋한 그리움과 사랑과 좋아함을 갖는 것이 애호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는 천국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남녀가 서로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연애라면, 사물에 대해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애호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연애감정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신앙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두 남녀가 연애하는 사이에, 같이 있고 싶어 하고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에 내일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내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미국 뉴욕에 가 있는 애인이 내일 돌아옵니다.
그러면 애인과 공항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내일일지 모르지마는, 애인에 대한 마음에 그리움, 애인에 대한 보고 싶음은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는 내일까지 미루어질 수가 절대 없는 바로 이게 바로 연애의 마음입니다, 연애의 감정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과 연애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승천하신 주님이 가 계시는 그 천국에 대한 그리움에는 내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 부자가 되는 것은 내일일지 모르지만,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내일이 없습니다.
그건 오늘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워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장면이 얘기가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엄청난 자기기만 속에 빠져있는가가 딱 드러나게 됩니다.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그 세례의 의미는 결코 종교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기성화 되고 조직화 된 종교의 어떤 들러리가 아닙니다.
세례는 어떤 철학도 아닙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 인격수련, 마음수련 이런 수련도 아니에요.
세례는 사랑의 결실입니다, 인격적인 사건이에요.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그 하늘에 계신, 천국에 계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인격적 결단이 세례입니다.
종교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인격적 결단이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의 의미를 염두에 두면서, 바울과 어거스틴과 루터와 캘빈은 직접 간접으로 Daily baptism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의 삶은 baptism의 삶이에요.
세례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례의 삶.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위한 인격적 결단이고 세상에 등을 돌리겠다고 하는 결단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많은 남자들이 구애를 합니다.
이때 구애를 받은 아가씨가 마음에 싹트는 사랑의 감정에 충실하면서 한 남자에게 자기의 사랑을 주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모든 남자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결정한 것이고, 이 세상일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을 아예 주지 않겠다, 신경을 쓰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이라 그러면, 아니면 세례식은 안 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에게는 내일이 없다는 얘기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내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례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사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죄적인 삶을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 말고 마음을 이 세상에다 주면서 살았던 거예요.
세상은, 거듭 말씀 드리지만, 그렇게 사랑스러운 내 가족들에게도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적용이 되고, 목사님들에게 거룩한 사명처럼 여겨지는 목회조차도 세상입니다.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우리가 마음을 써서는 안 되는 세상일이고, 목회 조차에도 마음을 주면 그것이 죄악입니다, 그것이 죄악이에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목양에 관한 사명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을 사랑하느냐'가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은 뒤에 '양을 치라'고 사명을 주시죠.
양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착각 속에서 자기 사랑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거 용납 안 됩니다.
목회도 세상일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주면 죄악이에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그 영원한 사랑의 규정은, 어떤 목사 교황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계명입니다, 똑같이.

그러므로 세례라는 것은 사랑의 결단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루 일상 속에서 한 순간도 예외 없이 가동되어야 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안 받으셔도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아야 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떤 틀을 유지해 나가야 되느냐, 어떤 경로를 지나가야 되느냐라는 그 경로를 만드시느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결정할 때, 이게 바로 세례 아닙니까?
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과정을 지나야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는 세례의 의미가 제대로 살아나겠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아예 틀을 만드신 겁니다, 틀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인데, 예수님과 연합하면 세례 요한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 사건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Daily Baptism이라 그랬으니까 매일같이 반복하면 됩니다.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 그대로 반복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에서도 우리가 이미 다 본 얘기에요.
그런데 누가는 특이하게도 기도하는 것을 덧붙입니다, 기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마태와 마가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시고(비둘기 형체로),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하늘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그 말씀이 들려졌다고 얘기하는데, 누가는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와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사이에 기도하셨다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요거 참 기가 막힌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셨겠나 하는 겁니다, 무엇을!!
여러분 한번 짐작을 해 보시죠.

자,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라와야 될 것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데 우리가 주님 기도하신 그 기도의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까? 내용을 알아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세례의 의미에서 기도의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례가 뭐라고요? 이제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결단의 표현이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언제?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언제일지 모르고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지마는, 하나님을 그

리워하는 일에는 내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례를 통하여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을 그리워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이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이 곧바로 이어져서 지금 그리워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마음으로 애틋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천국을 왜, 하나님아버지가 계신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 하나님아버지가 계신 천국을 왜, 내일로 미루고 죽은 다음으로 미루어 놓느냐 이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마음으로 실제로 그리워하는 것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세상을 등지겠다고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일이 잘되는 것, 형통하는 것 이따위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식이 내일은 잘되기를 바라는 것, 내가 내일은 돈 많이 버는 것, 내일은 멋진 외제차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좀 더 멋지게, 휴머니즘이 가득 담겨있는, 내가 내일은 인도로 빈민구제를 위하여 날아갈 것이다, 아프리카에 빈민을 위하여 내가 봉사하러 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계획하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애착을 느끼면서 계획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지금 이거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연인이 서로 마음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불꽃 튀는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출장 때문에 부산을 가서 오늘 못 만나게 됐습니다.
어제까지 만났어요. 하루저녁 못 만난다고 죽습니까?
그런데 죽는 거예요.
이 연애하는 남녀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지옥입니다, 기다림은 지옥이에요.
그리움이 아름답다, 이건 다~ 변태적 연애감정이에요, 그리움이 아름다울 수 없지요.
애인이 아름다워야지 왜 애인에 대한 그리움이 아름다워요.
그리움은 죽음입니다, 이건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면 하나님이 그리워야지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지금이 미치도록 싫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이 지금 문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일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관계에선 내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어야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천국이 지금 그리워야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을 죽은 다음에 가겠다는 사람은, 제 모든 신앙생활을 통하여 제가 장담합니다, 제 모든 연구 활동을 통하여 내린 결론으로, 천국을 죽은 다음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보이는 것을 그리워하고, 들리는 것을 그리워하고, 만져지는 것을 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신앙이 뭐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에는 내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대해서 갖는 우리의 그리움은 내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세례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대체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공생애를 세례로 시작하시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실 때 하늘 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기가 막힌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매일 매일을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던 이 모습으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Daily Baptism이에요.
매일 매일을 세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dP요.
하늘이 열린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기도가 드려질 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서 교통이 이루어지는데, 그 교통 가운데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을 기뻐하십니까?

목양일념이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선배님들이.

잘못된 말입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목양일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에 일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명을 꿈꾸고 비전을 갖고 나가는 자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의 의미에 충실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지금 그리워하는 자를,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나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얘기이고, 그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린다는 얘기에요.

자, 마태복음에 7장에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다, 어떤 아버지가 구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면서 마태가 '어느 아버지가 자식에게 뱀을 주며 뭐 돌을 주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대신에, 좋은 것 대신에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주실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세례 받는 이 장면이 그대로, 누가는 나중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뭐가 열려요? 천국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렸다는 얘기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뭘 구해요?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지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고백을 듣습니다.

세례와 기도.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한 자가, 이제 그 사랑하기로 결심한 하나님을 지금 그리워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하늘 문을 여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고백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만드는 일이라는 얘깁니다.

지금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일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을 듣고서는,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고백을 마음에 듣고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사장님은 오늘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계획합니다, 직장인은 오늘 자기가 사장님에 의해서 주어진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계획합니다, 학생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계획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부는 오늘 살림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하고 시작합니다.
신앙인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사랑하고 나 때문에 기쁘시다는 고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는 길이 세례요 기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 세상 모든 것에 대해 마음이 등지고, 그리고 그렇게 등지기로 결정했으면 이제 향하고 있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에요, 기도를.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
왜냐하면, 그리움이라는 건 지금 만나기를 원하는 거니까, 지금 만나기를 원하는 게 그리움이니까, 지금 접촉하기를 원하는 게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니까.
세례의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사도바울이 분명이 얘기해요,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 세상에 대해 등을 돌리는 겁니다.
세상이 또한 나에 대해서 등을 돌렸습니다.
세상과 결별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이유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면, 십자가를 붙잡았으면 붙잡을 걸로 끝내지 마시고, 붙잡았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지 말고,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 세상에서 쥐고 싶은 것 세상에서 쌓고 싶은 일, 이것을 향해 나가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싶어 하는 그리움의 기도를 하시면, 하늘이 열리겠다는 것이 이 본문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어지면서 하나님의 고백이 들릴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실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고백을 들으면 사지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바로 하루하루 Daily Baptism을 통하여 하루하루를 공생애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세례를 통하여 시작될 때, 이 세례 과정이 이렇게 명백하게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이유는 우리도 하루를 사생애가 아니라 공생애로 살기 위해서, 이 세례의 과정을 거치고 살아가면서, 하늘이 열린 상태에서 이 땅을 하나님에 의해서 살게 되라는 축복 된 엄~청난 신비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었던 것이지요.

신앙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그리워하세요.
지금 그리워하세요, 천국과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것이 신앙이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신앙이라면 우리 신앙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이 땅 위에서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을 것이며, 우리가 간섭할 바도 우리가 쳐다볼 바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등진 세례의 의미를 연장시켜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기도가 반드시 따라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를 향한 고백을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서야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